

1930년대 금강산 국립공원 추진 계획의 경과와 의미

The Progress of Mount Geumgang National Park Preparation Plan and Its Significance during the 1930s

성 나 연* 전 봉 희**
Sung, Nayon Jeon, Bo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Mount Geumgang National Park Preparation Plan changed the landscape of Mt. Geumgang during the 1930s. In the early 1930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sought to conserve the landscape of Mt. Geumgang, which had been damaged by increasing tourists and reckless development, by executing a national park plan. Uehara and Tamura, invited Japanese landscape architecture authorities, had contrasting viewpoints for national parks, thereby suggested two different national park preparation plans. Uehara emphasized Inner Geumgang's traditional scenic spots with old buildings and stories, while Tamura did Outer Geumgang's modern natural landscape. The final plan adopted both of their plans by applying each to separate zones. This plan was partially implemented and changed the landscape of mountains, although Mt. Geumgang was not designated as a national park as planned. Mt. Geumgang was reorganized by the plan as follows. First, the territory of Mt. Geumgang, which had been ambiguous, was confirmed and expanded as a 'great landscape of granite mountains'. Second, the area of Mt. Geumgang were divided into multiple zones for different purposes. Newly added areas were developed as the zone for physical training of alpinists while highlighting a Mt. Geumgang's attribute as "unexplored nature." On the other hand, existing Inner Geumgang and Outer Geumgang areas were developed as the zone for tourists, which had facilities for groups of tourists and motoring roads for the short period sightseeing. New Geumgang was to be developed as a midpoint destination for the upper-class; however, this plan was abandoned as the whole plan was scaled down after 1933. Third, the landscapes of each zones were characterized by the building styles in it. Through this strategy, Outer Geumgang and newly added areas, the base of alpinists, were portrayed as modern and western, whereas Inner Geumgang, the base of tourists, was portrayed as traditional and oriental. These changes are important in that it has an influence on today's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Mt. Geumgang.

키워드 : 금강산, 국립공원, 풍경계획, 관광, 등산, 자연 보전, 1930년대

Keywords : Mount Geumgang, National Park, Landscape Planning, Tourism, Alpinism, Conservation of Nature, 1930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금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풍경(공원)계획안(이하, 국립공원화 계획)을 마련하고 그 중 일부를 실현했다. 이 시기에는 일본에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조선에서 시가지계획령 등이 시행되면서, 관동대지진 이후 새로운 근대적 질서에 의해 국토공간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국립공원화 계획은 근대 공업도시와 함께 발명된 ‘자연’에 대한 본격적인 통

제와 재편을 관찰할 수 있는 시도로서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일본의 ‘근대화’ 기획 속에서, 국립공원화 계획을 통해 ‘금강산’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자연이 새롭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공간계획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근대기 금강산의 변화는 주로 역사·지리학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관광안내서, 사진첩, 여행기 등을 토대로 철도의 등장 이후 출현한 ‘관광’이라는 새로운 여가 행태를 통해 금강산 경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동시에 조선과 만주를 아우르는 식민지 풍경의 소비를 통해 제국의 국민의식을 강화하는 과정이 곧 금강산 관광이었음을 강조하여, 식민지 근대화론을 극복하고자 했다(Kim, 2020; Cho, 2010; Kim, 2019; Won, 2011; Yu, 2009).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이미 실현된 사건이 함의하는 정치사회적 의미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관광개발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금강산 국립공원화 계획의 존재를 언급하면서도, 국립공원 지정에는 이르지 못했기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다.

한편 일본 조경학에서는 초기 국립공원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제도의 도입을 주도했던 중심인물인 타무라 츠요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park@snu.ac.kr)

이 논문은 2019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1930년대 금강산 국립공원계획을 통한 금강산 영역의 재편과 변천』을 발전시킨 연구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과 건설환경연구소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시(田村剛, 이하 타무라)¹⁾의 언술과 업적이 다수 연구되었는데, 그 중 미즈우치 외 2인의 연구는 금강산 국립공원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Mizuuchi, Awano & Huruya, 2016). 이 연구는 타무라와 우에하라 케이지(上原敬二, 이하 우에하라)²⁾가 금강산 국립공원 추진 과정에 동시에 관여했음을 밝히고, 이들이 제출한 계획안을 비교·분석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두 학자의 관점의 차이가 이 시기에 이르러 화해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 집중해, 장기간의 계획과정의 경과를 다루지 못했으며, 조선총독부(이하, 총독부)와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기철도회사(이하, 금강산 전철), 금강산 사찰 등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로 결정된 국립공원화 계획의 최종안은 검토하지 못했다.

이에 최근 김지영은 1930년대 금강산 국립공원 추진과정의 전모를 밝혀 주목된다⁵⁾. 그는 금강산 국립공원화를 ‘일본제국의 국가풍경화 과정’으로 진단하고, 계획, 영역화와 법제화 등을 통해 금강산을 국가 중심의 틀 속에 배치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면서 국립공원화 논의가 지니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밝혔다(Kim, 2021a). 또한 국립공원화 계획 내용에 관해서는 도로개발 및 교화·오락시설 지구의 구성에 주목하여, 제국의 자본축적 전략으로서 금강산의 자연이 생산되었음을 지적했다(Kim, 2021b). 그의 연구들은 주

로 국립공원화 논의의 형식과 과정, 국가주의적 성격에 관심을 둔 것이었다.

이 연구는 보다 미시적으로 국립공원 추진 과정에서 금강산의 지리·사회적 조건에 주목하여 그것의 영향 관계를 밝히고, 국립공원화 계획 추진 이후에 금강산에 일어난 경관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930년대 금강산 국립공원화 관련 총독부 행정문서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총독부 산림부가 개최한 1930-31년 금강산 보수에 관한 타합회에 관한 내용이 총독부 임정(林政)문서 내 『영림창관내도면급기타관계서류(營林廠管内図面及其他關係書類)』와 『금강산 보수에 관한 타합회 서류(金剛山保勝に関する打合會書類)』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철도협회회지에서는 이 타합회를 금강산 국립공원계획 수립과정으로서 소개하고 있으며⁶⁾, 1930년 8월 3일자 경성일보는 타합회에 앞선 두 축탁의 금강산 사찰을 국립공원 추진의 일환으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타합회에서 제출된 계획을 국립공원화 계획으로서 다루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1930년 전후,

Table 1.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s Documents related to Mount Geumgang National Park Preperation Plan during the 1930s

| No. | Title | Contents | Source | Year |
|-----|---|--|--|------|
| 1 | Dr. Uehara's Talk on a Tour Inspection of Mt. Geumgang (上原博士金剛山視察談) | Valuation of Mt. Geumgang as a national park and suggestion of rough scheme for its conservation after a tour inspection of Mt. Geumgang by Uehara | Documents of the Forest Administration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 Documents & Drawings of the Bureau of Forest Management (營林廠管内図面及其他關係書類) | 1929 |
| 2 | Dr. Tamura's Research Report (田村博士調査報告) | Valuation of Mt. Geumgang as a national park and suggestion of rough scheme for its conservation after a tour inspection of Mt. Geumgang by Tamura | Documents of the Museum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 Documents regarding Mt. Geumgang (강원회양군 내금강면 금강산관련 각종) | 1930 |
| 3 | Mt. Geumgang Park Plan 1 (金剛山公園計畵第一回計畵書) | A national park plan of Mt. Geumgang by Uehara | Saito Makoto ³⁾ Collection (齋藤実關係文書目録: 海軍·朝鮮總督時代) | 1930 |
| 4 | Mt. Geumgang Scenery Plan (金剛山風景計畵書) | A national park plan of Mt. Geumgang by Tamura | Documents of the Museum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 Documents regarding Mt. Geumgang | 1930 |
| 5 | Mt. Geumgang Scenery Plan(a) (金剛山風景計畵案(a)) | Mt. Geumgang Association's national park plan which aggregates a couple of plans by Uehara and Tamura | Documents of the Forest Administration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Documents of the Discussion on Conservation of Mt. Geumgang (金剛山保勝に関する打合會書類) | 1931 |
| 6 | Mt. Geumgang Park Facility Plan (金剛山公園施設計畵圖) | A visual presentation of No.5's plan on a map, assumed to have been created in 1931 | Ogawa Keikichi ⁴⁾ Collection (小川敬吉文化財調査資料) | n.d. |
| 7 | Mt. Geumgang Scenery Plan(b) (金剛山風景計畵案(b)) | A simplified plan of No.5's which contains zoning, facility layout, and management system of Mt. Geumgang, assumed to have been created after 1933 | Documents of the Museum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Documents regarding Mt. Geumgang | n.d. |
| 8 | Mt. Geumgang Sightseeing Facility Plan (金剛山探勝施設計畵案) | A budget plan for each facility of No.7's plan, assumed to have been created after 1933 | Documents of the Museum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Documents regarding Mt. Geumgang | n.d. |

1) 田村剛(1890-1979): 도쿄제대 농학부 임학과(林學科) 출신의 조원가(造園家)이자 조원학자. 스승인 혼다 세이로쿠(本多静六), 와 함께 일본의 조원학자 1세대로 꼽힌다. 일본 최초의 근대적 공원인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의 계획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일본 국립공원 제정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 上原敬二(1889-1981): 일본의 1세대 조원학자. 도쿄제대 농학부 임학과(林學科)의 혼다 교실 출신으로 메이지 신궁(明治神宮)의 조원에 참여했으며, 일본의 지역적 풍경 조성·보전에 보다 관심을 가졌다.

3) 齋藤實(1858-1936): 일본의 해군 출신 관료로서, 1919-27년과 1929-31년, 두 차례 조선총독을 역임했다.

4) 小川敬吉(1882-1950): 조선총독부 기수로서, 조선의 고적 및 고건축 조사를 수행했다.

5) 이 논문이 투고된 이후, 비슷한 주제를 다룬 김지영의 논문 세 편이 발표되어, 그 일부를 수정에 참고하였다. Table 1에서 6은 이 논문에서만 검토되었으며, 7,8은 김지영의 연구에서 1938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여기에서

산림부 촉탁인 우에하라의 『우에하라박사 금강산시찰담(上原博士金剛山視察談)』, 『금강산공원계획제1계획서(金剛山公園計畫第一回計畫書)』, 또 다른 촉탁인 타무라의 『타무라박사조사보고(田村博士調査報告)』, 『금강산풍경계획서(金剛山風景計畫書)』, 1931년 금강산 보승회의 『금강산풍경계획안(金剛山風景計畫案(a))』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학무국 기수였던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 관련 서류 내의 『금강산공원시설계획도(金剛山公園施設計畫圖)』는 1931년의 종합안을 도면화한 것으로 추정되어 함께 검토했다. 한편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 내 『강원 회양군 내금강면 금강산 관련 각종』에는 위의 타무라의 계획안과 함께 『금강산풍경계획안(金剛山風景計畫案(b))』과 『금강산탐승시설계획안(金剛山探勝施設計畫案)』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볼 때, 법령이 제정된 1933년 후반 이후의 국립공원화 계획 관련 문서로 추정되어 역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Table 1).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금강산 국립공원 추진과정의 경과를 확인하는 한편, 수립된 국립공원화 계획안에서 경관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론하고, 1930-45년 사이의 조선·동아일보 등 일간지 기사, 1931년 이후의 금강산 여행안내서의 경로 소개 내용 등과 대조하여 그 실현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전통시대의 산수화, 근대기의 사진엽서, 사진집 등을 통해 시대별 금강산의 대표 경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 1930년대 이후의 금강산의 경관이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했다.

2. 일제 강점기 전후의 금강산 경험의 변화

2.1 17-8세기 사대부의 내금강~외금강 남부 중심의 유람 일찍부터 선경(仙境)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금강산은, 17-8세기 조선 사대부의 세계 인식 변화 속에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본래 와유(臥遊)를 통해 중국의 이상적인 산수(山水)를 거닐며 정신적인 수양을 추구하던 사대부들은, 이 시기 조선을 소중화(小中華)로 여기게 되면서 실재하는 우리의 산수를 찾아가, 그에 내재된 자연 본위의 원리를 몸소 체험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두텁게 흙이 쌓인 부드러운 둔덕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육산(肉山)을 중심으로 하는 내금강, 강인하고 날카로운 바위로 이루어진 골산(骨山)을 중심으로 하는 외금강, 내·외금강과 대조적으로 물(水)을 주로 하는 바다의 해금강이 조합된 금강산은 음양(陰陽)의 조화라는 주역의 원리가 체화된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사대부 누구나 유람을 소망하는 최고의 명승이었다(Fig. 1)(Lee, S., Ahn, D., Chin, S. & Lee, S., 2018). 그러나 금강산 유람에는 보통 한 달여가 소요되어, 장기간의 유람을 행할만한 시간·경제적 여유가 있고, 관청과 사

찰의 봉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한양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었다.



Figure 1. A True-view Landscape Painting of Mt. Geumgang by Jeong Seon in 1734(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지방에서 동해안 방향으로부터 접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강산 유람을 위해 한양에서 출발한 사대부들은 대부분 한양 동북방향의 간선인 경흥로를 통해 6-7일을 가서, 단발령을 거쳐 내금강 장안사에 도달했다. 금강산 유람은 장안사에서 출발해, 명경대와 삼불암, 표훈사와 정양사를 거쳐 만폭동 계곡, 보덕암, 마하연, 묘길상 등 내금강의 주요 명승들을 두루 거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내무재령을 넘어 유점사에 도달하여 은선대, 중내원, 백천교 등 외금강의 주요 명승을 돌아본 뒤 유람을 마치거나, 해안으로 이동해 해금강을 비롯, 삼일포, 총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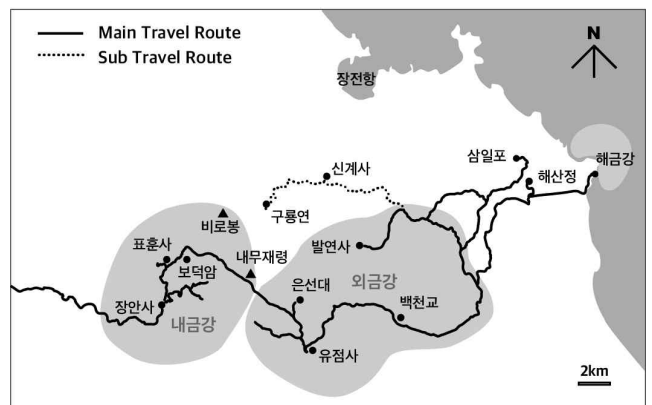


Figure 2. Areas of Inner Geumgang and Outer Geumgang Recognized along the Traditional Travel Route in the 17-18C

는 1933년 이후 작성된 문서로 정리했다.

6) 1930년 조선철도협회지에서는 두 차체에 걸쳐 ‘금강산국립공원계획(金剛山國立公園計畫)’이라는 제목으로 타합회의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Joseon Railway Association, 1930a, 1930b)

7)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법령으로서, 1933년 8월 9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11일에 시행되었다.

정 등의 관동팔경을 둘러보았다(Fig. 2)(Jung, 2014).

사대부들은 대부분 숙박처인 사찰과 안내자인 승려에 의지해 금강산 유람을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내금강의 장안사에서 출발해 외금강의 유점사를 거쳐, 해금강으로 이어지는 행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흙과 숲, 바위와 물을 거치며 우주의 질서와 만나는 정신적인 여정을 적절히 구현했다. 사찰이 없고 지세가 험준하여 승려들이 안내를 꺼리는 외금강 북부는 거의 유람되지 못했다. 18세기 중반까지 금강산을 유람한 사대부들에게 금강산이란 장안사 중심의 내금강과 유점사 중심의 외금강 남부, 그리고 해금강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이 시기의 산수화는 그들이 인식한 금강산의 공간을 재현한다(Fig. 3).



Figure 3. Inner Geumgang portrayed by Jeong Seon in 1711 (National Museum of Korea)

19세기에 이르면, 사대부의 취미였던 산수화를 지방의 사족이나 중인계층에서도 소비하고 서민층에서도 민화 금강산도가 유행하면서 금강산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Min, 2010). 이와 함께 사대부들의 정신적인 수양 행위였던 ‘유람’은 점차 진기한 대상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구경’이라는 시각적 행위로 세속화되기 시작했다(Jin, 2013).

2.2 1910년대 경원선 개통과 외금강 영역의 변화

금강산에의 접근은 20세기 초, 일제에 의한 근대적 교통망과 관광기반시설의 개설과 함께 급격히 변화했다.

1914년 경성과 개항장인 원산을 잇는 경원선 전체가 개통되면서, 원산에서 온정리(溫井里)를 통해 금강산에 접근하는 새 경로가 등장했다. 한일합방 이후, 외금강 북부

는 일본인이 진출하여 중석 광산촌이 형성되고⁸⁾ 철도 여행 온천지인 온정리가 개발되는 등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장이 되면서, 이 곳을 경원선 철도여행과 연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⁹⁾. 경원선을 통하면 경성에서 원산을 거쳐 금강산까지 2-3일 내에 도달할 수 있었으므로, 온정리는 이 시기 금강산 경험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경원선을 이용하되 평강을 통해 내금강으로 이동하는 경로 또한 개발되었다. 이에 철도국은 온정리와 장안사에 양식(洋式) 호텔을 개설하는 등 금강산 주변의 관광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갔다. 이에 따라 이 시기 금강산에는 조선인 외에도 일본인, 서양인¹⁰⁾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방문했다.

온정리 부근의 외금강 북부에는 18세기 중반 이후 알려지기 시작한 구룡연, 비봉폭, 상팔담, 만물상 등 비교적 새로운 명승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여행자들은 온정리에 머물며 외금강 북부의 명승과 해금강을 우선 둘러본 뒤, 전통적인 금강산 유람의 중심지인 내금강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산내 여정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또한 내금강으로 이동하기 위해, 외금강 북부의 광산촌을 따라 개척된 도로를 통해 온정령을 지나기 시작했으며, 장안사에 도달한 뒤에는 전통적인 내·외금강 유람 여정에 따라 금강산을 경험했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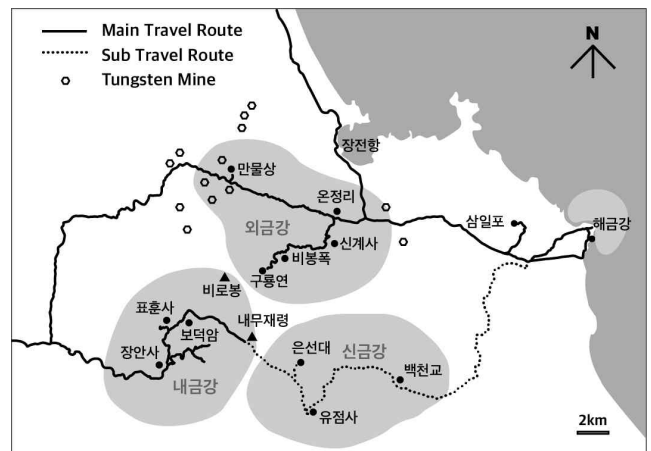


Figure 4. Areas of Outer Geumgang and New Geumgang Recognized along the New Travel Route in the 1910s

이 시기에는 외금강 북부를 중심으로 한 금강산 경험이 본격화하면서, 이 지역을 한정하여 외금강으로 칭하기 시작했다. 한편 전통적으로 외금강으로 인식되었던 유점사를 중심으로 한 외금강 남부는 선택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했다

8) 미쓰이광업회사(三井鉱業会社)는 온정리에 사무소를 두고, 삼성암, 신평리, 천불동 등에 출장소를 두어 온정령 부근의 중석 광산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부근의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광산은 1912-18년까지 운영되다, 1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폐광되었다(Takao, 1918, p. 64).

9) 당시 일본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민의 보건 문제의 해결방편으로서 온천욕이 각광받았으며, 철도국은 교외의 철도역 근처에 온천을 개발해 철도 이용을 장려했다(Sekido, 2009).

10) 이 시기 다수의 여행기록에서, 아시아에 파송된 구미의 외교관이나 선교사들, 학자들이 금강산에 방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며, 이 부근에 일본인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풍경이 있다하여 신금강(新金剛)이라는 영역으로 재편되었다(Kim, 2019). 이에 따라 ‘유점사를 중심으로 외금강을 탐승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은 점차 주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철도국이 관광 홍보를 위해 발행한 여행안내서와 사진엽서 등은 새로운 여정과 그에 따른 금강산의 주요 풍경의 이미지를 규격화하여 반복 재생산함으로써, 그들이 재편한 금강산의 공간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했다(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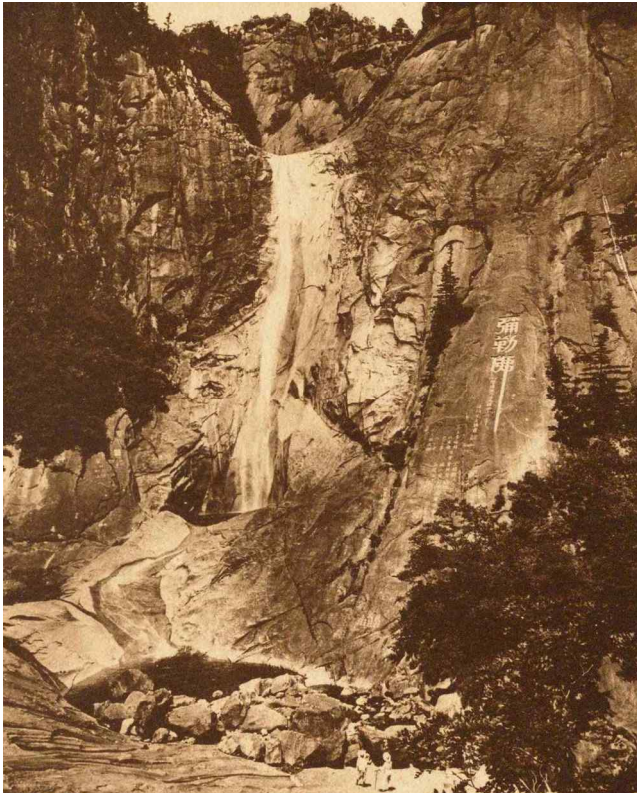


Figure 5. A Postcard's Image of Guryongyeon at Outer Geumgang(The Railway Administration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1927, p. 40)

2.3 1920년대 금강산선 개통과 금강산 관광의 확대

1924년에는 철원-김화 구간의 연결을 시작으로 관광 전용 전기철도인 금강산선이 개통되었다. 금강산 전철을 설립한 쿠메 타미노스케(久米民之助)¹¹⁾는 1918년 금강산 시찰을 통해 경성에서 금강산까지 직접 연결되는 관광 전용 노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고, 이듬해부터 금강산에서의 수력 발전을 토대로 전력공급 및 전기철도관광 사업을 전개하고자 했다. 이는 개항장과 주요 도시를 잇는 간선 철도¹²⁾의 부설을 끝낸 총독부가 철도망을 보다 조밀하게 형성하기 위해, 사실상 영업흑자를 보장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선사설철도령을 통해 활

발한 사철¹³⁾부설을 유도한 결과였다. 1929년에는 김화~말휘리 구간이 연결됨에 따라 경성에서 금강산까지 하루 내에 도달이 가능해지는 등 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경비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주말을 활용해 손쉽게 금강산에 다녀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금강산 관광이 대중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금강산선이 내금강을 향해 연장될수록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장안사 부근은 금강산 경험의 거점으로 재부상했다(Seo, 2020). 한편 북선(北鮮)의 자원 개발과 수송을 위해 부설이 추진된 동해북부선이 원산과 외금강을 통과하게 되면서, 국제 관광객의 증가 및 만주와 연계한 관광의 활성화 역시 기대되었다(Jeon, 2017). 이러한 변화는 이동과 숙박 시설의 개설에 치우친 철도국의 단편적 대응 이상의,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요구했다.

3. 1930년대 금강산 국립공원화 계획의 수립과 실행

3.1 두 명의 계획가에 의한 국립공원화 계획안

이러한 와중에 1927년 제국회의 중의원에서는 재(在)조선 정치인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藏) 등에 의해 『조선금강산국립공원 설정에 관한 건의』가 제출되었다(Maruyama, 1983). 이는 이후 십여년간 금강산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시작점이 된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1910년대부터 국토 내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을 보존하는 한편, 국민 보건의 증진과 오락을 위한 자연 풍경을 체계적으로 개발, 보전하여 지방경제를 부흥하고자, 미국의 국립공원(National Park)¹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에 지정되고자 하는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었는데, 금강산 역시 이 흐름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강산 전철은 대형 호텔과 골프장, 야구장, 경마장 등이 포함된 국제적 규모의 리조트 조성 계획을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¹⁵⁾. 이에 총독부 산림부는 금강산 관광객 폭증으로 인한 난개발 양상을 정리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통제하고자, 1930-31년의 2년간 내무국, 철도국, 체신국, 강원도청, 금강산 전철, 장안사와 유점사 등 금강산 관계자들과 함께 금강산 보승회(이하, 보승회)를 조직하고 ‘금강산 보승에 관한 타합회’를 개최했다. 타합회에서는 장안사 주변을 비롯한 금강산의 본격적인 정비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립공원법의 도입, 지속적인 공원 관리와 경영의 주체인 금강

13) 금강산선과 동해선을 비롯해 전북선, 개천선, 도문서부선, 경동선, 충북선, 전남선, 경남선, 황해선, 경북선 등이 있다.

14) 19세기 미국에서는 서부개척을 통해 획득한 토지 중 이주민에게 불하하고 남은 미개발 임야를 대규모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양과 보건 향상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는 1872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지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대규모의 원자연을 주요 대상으로 삼으며 구역 전체를 공유지로 유지한다는 특성을 지닌다(Moon, 2011).

15) 1927년 8월 6일 『동아일보』 3면의 “금강산을 세계락원으로 제반시설에 백만환”이라는 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

11) 久米民之助(1861-1931): 일본 내 4선 중의원의원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자, 토목기술자, 실업가이다. 금강산에서 아시아 최초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를 건립했다.

12)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호남선 등 경성을 중심으로 X자형으로 반도를 종단하는 철도를 가리킨다.

산 협회의 결성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일본 조원학의 권위자인 우에하라와 타무라를 산림부 촉탁으로 초빙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립공원 추진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했다(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1930, 1931).

우에하라와 타무라는 1920년대 일본의 국립공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국립공원의 목적에 대해 각각 ‘풍경 보전’과 ‘국민의 이용’이라는 대조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이 함께 국립공원화 계획에 참여한 사례는 금강산이 유일한데, 다소 상이한 금강산의 가치 해석과 제안을 담은 국립공원화 계획안을 각각 제출했다.

먼저 우에하라의 국립공원의 풍경 보전이라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보전 대상은 유연하게 보아, 유·무형 등 대상의 성격을 막론하고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는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이해했다. 그는 역사적 자원을 결핍한 대신 자연의 원풍경을 보전하고자 했던 미국과 달리, 오랜 역사 속에서 국토 대부분이 문명의 영향 아래 있던 일본에서는 그 대상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역화한 국립공원상(像)을 정립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금강산에서도 역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30년 7월, 산림부 촉탁으로서 금강산을 시찰한 뒤, ‘중국과 조선의 산수화를 연상’ 시키는 금강산의 기봉산수의 ‘전통적’ 이고 ‘동양적’ 인 특성을 부각하면서, 이는 외국인의 눈에 ‘이국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풍경으로서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하다는 소회를 밝혔다.¹⁶⁾ 그는 앞서 1929년 조선박람회 관람을 위해 경성에 들렀다 금강산을 시찰한 바 있는데, 금강산의 정비방안을 거론하면서, 내금강역은 수원역¹⁷⁾과 같이 전통적인 경승지의 인상을 전달할 수 있는 건물로 계획해 그 풍경 가치를 제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Uehara, 1929). 이러한 입장은 1930년 12월 우에하라가 제출한 『금강산공원계획제1계획서』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그는 금강산의 자연풍경에 더해, 수백년간 유지되어 온 산내 사찰군의 풍경,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풍부한 고적과 전설 등 인문·역사적 자원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내금강 장안사에서 출발해 유점사를 거치는 전통적인 경로를 가장



Figure 6. A Postcard's Image of Bodukam at Inner Geumgang(Shiiki, 1937, p. 34)

16) 1930년 8월 3일자 『경성일보』 2면에 게재되었다.
17) 팔각지붕을 얹은 전통적인 목가구조 형식의 역사이다.

중요한 간선으로 제시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산내 시설에는 항토적 특색을 보여주면서도 주변의 풍치를 해치지 않는 외관양식을 적용하고자 했다(Uehara&Yoshimura, 1930). 우에하라의 금강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풍경으로서 내금강에 주목했다(Fig. 6).

한편 타무라는 국립공원에서의 풍경 보전을 강조하면서도 그 보전 대상을 절대화했는데, 북미 대륙에서와 같이 광활한 자연의 원풍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보건 증진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이해했다. 그는 일본의 통치영역 내에서 미국 국립공원과 같은 풍경을 발견하고자 했는데, 이에 따라 그는 일찍부터 금강산을 최우량의 일본 국립공원 후보지로 꼽아왔다¹⁸⁾. 그는 1915년 금강산 시찰한 뒤, 이듬해 대일본산림회보에 『금강산과 그 풍경개발책(金剛山と其風景開發策)』을 게재했는데, 화강암 기암괴석의 양적인 풍부함에 대하여 ‘풍치적 기린아’, ‘천재적’ 등으로 묘사하며 금강산의 독보적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일본 내 국립공원 후보지를 미국의 국립공원 지정지의 유사성에 빗대 평가하곤 했는데¹⁹⁾, 금강산의 가치를 화강암의 산세가 두드러지는 요세미티 공원과 대응하여 이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²⁰⁾(Tamura, 1916). 1930년 8월, 우에하라에 뒤이어 금강산 시찰 뒤, 그는 금강산 풍경지역이 ‘세계적 일류 국립공원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대부분의 모든 조건이 이상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 금강산 풍경의 보편적 우수함을 주장했다. 이후 제출한 『타무라박사조사보고서』와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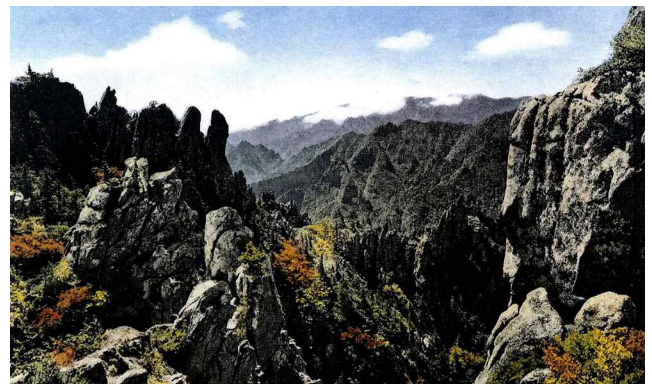


Figure 7. A Postcard's Image of Innermost Manmulsang at Outer Geumgang(Shiiki, 1937, p. 22)

18) 1920년 타무라는 일본 내무성 위생국의 촉탁으로 임명되어 국립공원 후보지 조사를 행하게 되는데, 이듬해 일본 내 16개의 후보지에 더해 금강산을 국립공원 후보지로 추천했다(Mizutani, 2014). 또한 1928년 국립공원 후보지 조사를 위해 대만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금강산을 비롯한 식민지 내 후보지를 본토 공원조직 내에 도입할 것을 제창했다(Kanda, 2011).

19) 타무라는 미국 국립공원에 대해 소개하며 레니에산(Mount Rainier) 국립공원을 후지산에, 크레이터호(Crator Lake) 국립공원을 토와다호(十和田湖)에 빗대었다(Tamura, 1929). 대만 국립공원 후보지 시찰 후에는 대만을 하와이에 빗대어, ‘남국(南國)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열대 풍경에 주목했다(Kanda, 2011).

20) 국립공원 위원으로서 1923년 타무라와 함께 요세미티 공원을 시찰한 후지야마 라이타(藤山雷太)는 ‘요세미티가 금강산보다 못하다’고 비교 평가하였다(Kim, 2019).

강산 풍경계획서』에서는 특히 ‘만물상의 풍경을 농친다면 금강산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금강산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풍경으로 평가하고, 만물상 탐승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를 강조했다(Fig. 7). 그리고 섬세한 내금강으로부터 시작해 웅장한 외금강을 거쳐, 최후에 경탄을 자아내는 만물상에 이르도록, 기대감을 높여가는 여정을 제안했다(Tamura & Kosaka, 1930).

3.2 최종안의 수립과 부분적인 실현

금강산 경관에 대한 두 학자의 계획안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국립공원 구역은 내·외·신금강 외에 외금강 북부의 국유림을 포함할 것, 이를 풍경보존구역과 개발가능 구역으로 구분할 것, 풍경의 특색에 따라 세부 구역을 나누어 정비할 것, 장안사와 온정리간의 연락을 강화할 것, 산내 자동차도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탐승로를 정비할 것, 통신 기반시설을 완비할 것, 다양한 형태의 숙박 및 오락시설을 도입할 것 등 금강산 정비의 기술적인 요소에 관한 제안은 대체로 대동소이했다. 1931년 보승회는 두 학자의 계획안을 두루 종합해 최종안을 수립했다. 『금강산풍경계획안』이 그것인데, 국립공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사항들을 목록화한 것이다(Mt. Geumgang Scenery Plan(a), 1931). 이를 도면화한 『금강산공원시설도』에는 그물과 같이 촘촘하게 산내구역을 연결하는 자동차도로, 도보탐승로, 전화선 등의 기반시설 위에 다양한 등급의 숙박시설²¹⁾, 각종 체육시설 및 교화시설²²⁾과 편의시설²³⁾ 등이 세부구역의 성격에 따라 구분 배치되어 있어, 이 계획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의 성격을 띠었음을 알 수 있다(Fig. 8)(Mt. Geumgang Park Facility Plan, 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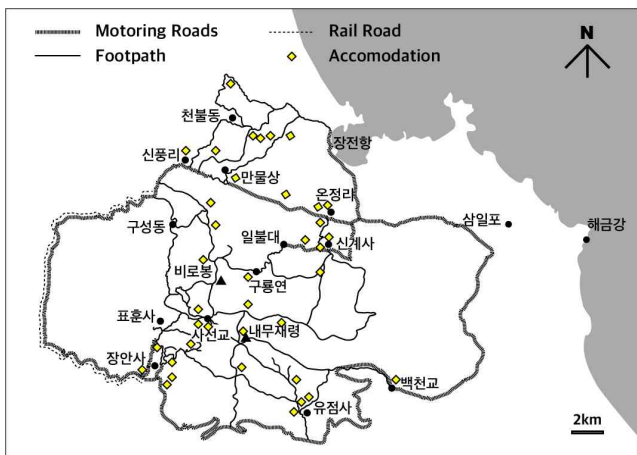


Figure 8.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Network in the Mt. Geumgang Scenery Plan(a) in 1931

21) 별장, 고급호텔, 중급호텔, 여관, 산장, 대피소, 유·무료 야영장 등이 계획되었다.

22) 체육시설로는 소운동장, 골프장, 테니스코트, 스케이트장, 수영장, 스키장, 낚시터 등이, 교화시설로는 박물관, 동·식물원, 공회당 등이 계획되었다.

23) 대피소, 전망대, 조망대, 휴식소, 화장실, 매점, 음식점, 자동차 발착소 등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금강산이 일본의 국립공원 도입 논의 초기부터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31년에는 그 효력이 일본 본토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립공원법이 공포되고, 1934-36년까지 본토에서 우선 1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는데 그치면서 금강산의 국립공원화는 보류되었다. 하지만 최종안은 훗날의 국립공원 지정을 염두에 두고 부분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²⁴⁾. 1932년에는 금강산협회가 설립되어 금강산의 정비와 경영을 위한 본격적인 체계가 마련되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한편 1933년 12월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이하, 보존령)이 시행되어, 이후의 금강산 정비는 이에 의거해 재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보존령을 소관하는 학무국은 『금강산풍경계획안』을 재작성했는데, 이는 이전 계획의 기초를 따르되 규모를 다소 축소한 것이었다. 주요 간선도로와 탐승로, 편의시설 계획은 대체로 유지되되, 숙박시설은 산장과 대피소, 야영장 등 풍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유형으로 한정되었으며, 오락시설 또한 식물원과 공회당, 스키장만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그 종류와 수가 상당히 감소했다(Mt. Geumgang Scenery Plan(b), n.d.). 이는 보존을 위주로 하는 법령의 성격이나 실행예산의 축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비계획은 꾸준히 실행되어 주요 간선도로에 연락버스가 운영되고, 풍치가 좋은 지점에 휴게소가 운영되기도 하는 등 금강산의 풍경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Fig. 9).



Figure 9. Tour Buses on Hanhagye Road(left) and a Tea House near Joyangpok Waterfalls(right) (Mt. Geumgang Association, 1941, p. 48, 55)

그러나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시행과 더불어 금강산선에 대한 사철보조금이 중단되는 등 관광이 불요불급한 행위로 취급되는 한편, 전시체제에 부응해 개광(開闢)이 허용되면서 금강산 정비는 추진력을 잃기 시작했다. 1940년에는 중석 도굴 과정에서 발생한 외금강 대화재로 인해 금강산 풍경 훼손에 대한 공분이 절정에 이르면서 국

24) 1931년 9월 12일 조선총독부 관보에서는 금강산 전신전화취급소가, 같은 해 10월 26일자 및 1932년 9월 29일 관보에서는 각각 신계사와 만물상에 전신전화취급소가 설치되었음이 공표되어 있다. 또한 1932년 9월 15일 관보에서는 금강산 전철이 고성자동차상회 등과 연계해 산내 자동차 이동을 추진했음도 알 수 있다. 이는 금강산 국립공원화 계획이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립공원화가 재추진되기도 했지만, 끝내 지정은 되지 못했다. 금강산 전철은 1942년 경성전기에 흡수 합병되면서, 약 20여년간 전개해온 금강산 개발사업에서 물러나게 된다. 마침내 1944년에는 전시공출명령과 함께 금강산선 창도~내금강간 선로가 철거되기에 이른다.

4. 국립공원화 계획에 의한 금강산 공간의 재편

4.1 ‘대자연’ 을 지닌 외금강 북부 영역의 편입

국립공원화 계획은 흔히 일만이천봉으로 불리우는 모호한 대상이었던 금강산의 영역을 물리적인 경계로 확정 짓는 첫 시도였다²⁵⁾. 민간에 의한 개발을 규제하고, 국가의 비용을 투입해 정비하고 관리할 영역을 정하기 위해 금강산 풍경의 정체성과 가치가 논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포함 혹은 제외할 구역이 나누었다.

타무라는 금강산에서 암석의 풍경을 중시하면서, 이에 따라 새 풍경을 발견하고 재평가했다. 만물상은 19세기부터 알려졌는데, 이후 만물상보다 더 깊은 곳에 뛰어난 풍경의 암석 군집이 발견되어 신(新)만물상이라고 불렸으며, 뒤이어 유사한 풍경이 발견되어 오(奧)만물상, 이(裏)만물상 등으로 불렸다. 1915년 첫 시찰 뒤, 타무라는 금강산 바깥에 더 좋은 풍경들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국립공원화 계획에서 금강산의 북부, 신흥리와 천불동, 선창곡 국립림까지 포함해 국립공원의 영역을 정했다(Fig. 10). 한편 우에하라는 국립공원의 영역을 정하면서 풍경의 특색에 따라 금강산을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정비할 것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내·외·신·해금강에 더해 금강산 북부의 국립림이 새로 포함되었으며, 이를 오(奧)금

강이라 칭했다. 이전까지 지하자원 채굴의 무대에 불과했던 금강산 북부 구역은 두 학자의 시선에 의해 ‘미답(未踏)의 대규모 암석 풍경’ 으로서 재발견되었으며, 이후 여행안내서와 사진첩 등에 등장하여 금강산 풍경의 풍부함을 선전했다.

한편 전통적으로 금강산 경험의 중요한 축이었던 해금강은 금강산 국립공원 영역에서 제외할 것인지가 논의되었다. 우에하라는 첫 시찰 뒤, 해금강의 경색이 평범해 국립공원에 포함하기를 꺼렸으나, 계획안에서는 본래 별개의 명승이었던 삼일포와 총석정을 합쳐 해금강을 수용했다. 반면 타무라는 국립공원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공유지(公有地)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해금강 지역은 민유지(民有地)의 비중이 커서, 이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고자 했다. 1931년 보승회에서는 해금강의 제외 여부가 거듭 논의되었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1933년 이후의 계획안에서 해금강은 결국 국립공원 영역으로부터 제외되었다²⁶⁾.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강산은 ‘화강암 산악의 대풍경’ 을 중심으로 그 영역이 조정되고 확정되었다. 이는 전통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문명의 영향 속에 있었던 금강산의 기존 영역과는 구분되는 원자연을 포함하여, 국립공원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금강산과 같이 오랜 명승이었던 일본의 닛코(日光)나 하코네(箱根)의 국립공원화 과정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의 영역 확장을 발견할 수 있다²⁷⁾. 이는 조선의 지리산이나 백두산, 대만 신고아리산(新高阿里山), 일본 알프스 등이 그 자체로 미개발 상태의 원자연으로서 주목되고 국립공원화가 추진된 것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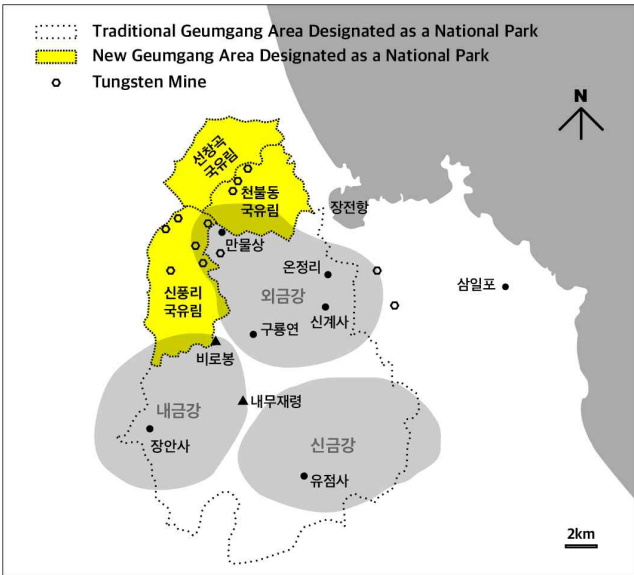


Figure 10. Areas Supposed to Belong to the National Park

4.2 신체 단련의 장으로서 산악 공간 개발

이렇게 새롭게 더해진 영역에 대해 타무라는 등산, 식물 연구, 장기휴양 등 특수한 용도를 부여했는데, 이는 주로 여행기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는 엘리트 남성의 취미인 산악 등반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가의 존립과 부의 핵심기반으로서 개인의 몸이 주목하고 보건 증진, 체력 강화를 강조하던 당시²⁸⁾, 산악 등반은 대자연 속에서 신체를 단련하는 스포츠로서 각광받고 있었다. 이는 유명한 풍경의 감상을 위한 관광 등산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신체를 단련하며 산에 오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문명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정해지지

25) 성나연 외 2인은 1930년대 금강산 국립공원화 계획을 통해, 이전까지 모호했던 금강산의 물리적인 영역이 비로소 확정되고, 이용목적에 따라 이원화된 영역으로 구분되기 시작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Sung, Jeon & Seo, 2019). 김지영은 이 현상을 ‘영역화’ 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Kim, 2021b).

26) 관습적으로는 삼일포와 총석정을 포함한 해금강을 금강산의 일부로 인식했음을 여행안내서나 사진첩을 통해 알 수 있다.

27)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사당인 도쇼구(東照宮)가 있어 참배객이 끊이지 않았던 닛코는 국립공원화 과정에서 기존 구역에 무명의 자연이었던 오제(尾瀬) 지역을 더했으며, 온천지와 별장지로서 충분히 개발되었던 하코네 역시 원자연 위주의 후지(富士)와 병합해 국립공원이 될 수 있었다(Morikushi, 2011).

28) 근대국가의 출현과 산업화는 국민의 몸이 대한 관심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훌륭한 노동력과 건강한 전투력을 가진 노동자와 군인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생존의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근대 일본의 지식인들은 일본인이 서양인에 비해 열등한 신체를 갖고 있다고 보았으며, 근대화를 위해 인종개량과 체위향상을 강조했다(Son, 2010).

않은 경로를 스스로 개척하는 능동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응해 금강산에서는 등반을 위한 웅대한 산악, 미답(未踏)의 자연으로서의 면모가 더욱 부각되는 한편, 대체로 하루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산장이나 대피소, 야영장 등 산중 간이숙박시설과 전화 등 통신시설이 배치되고²⁹⁾, 그 주변의 탐승로가 정비되었다(Fig. 8). 등산가들이 장안사나 온정리로 돌아가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일정에 따라 금강산을 두루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32년 재(在)조선 일본인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조선산악회는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들을 초등정하며 새로운 산중 이동 경로를 개척했다(Joseon Alpine Club, 1932). 한편 겨울철 산악 등반 기술인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었다. 1935년 1월에는 신평리 스키장에서 대형 스키대회가 개최되었고³⁰⁾, 1937년 1월에는 경성과 외금강 간 스키직통 열차가 운영되는 등³¹⁾ 겨울에도 스키를 타기 위해 금강산을 찾는 분위기가 확대되었다. 등산가들은 금강산의 경험 가능한 공간과 시간을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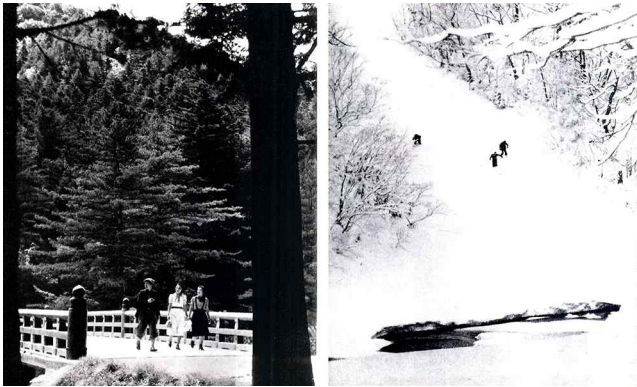


Figure 11. Tourists near Jangansa(left) and Alpinists at Gusungdong Valley(right)
(Mt. Geumgang Association, 1941, p. 18, 104)

이에 따라 1934년 발행된 금강산탐승안내서(金剛山探勝案内書)는 내·외금강의 명승을 순환적으로 설명하는 전통적 방식 대신, 금강산을 방위에 따라 크게 동·서·남·북·중금강의 5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하나의 봉우리와 17개의 계곡으로 세분화하여 소개한다³²⁾. 1941년 금강산협회가 발행한 안내서에는 내금강, 구룡연, 만물상 코스 외에도 6개의 새로운 코스가 소개되어 있다³³⁾. 이는 ‘단일한

경로를 따라 순환하며 접하는 풍경의 합’으로 한정되던 금강산의 공간인식이 ‘선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풍경의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Fig. 11).

4.3 관광 대중화를 위한 단기 명승 회유 코스 개발

반면 내금강과 외금강 북부의 전통적인 탐승구역에서는 관광개발을 지속하되, 대중성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비안이 제시되었다. 이 영역은 수학여행이나 탐승단여행 등 단체 관광의 형식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단기간 내에 주요 명승을 둘러보려는 수요층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다. 우선 온정리와 장안사 부근 탐거리 등 내·외금강의 탐승 거점에는 중급의 대규모 숙박시설을 확대하거나, 대규모 강연회 등을 열 수 있는 공회당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1931년에는 금강산선 내금강역과 동해북부선 통천역이 개통되면서 내·외금강 공회당이 개장되었으며, 1934년에는 내·외금강 호텔이 중급 숙박시설인 산장으로 전환되어 재개방되었다. 또한 이 영역 내 분포하는 고적과 유물 등 관광 자산을 보존하고 정비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장안사가 크게 수리되었다(Seo, 2020).

이와 관련해 국립공원화 계획에서는 자동차회유도로의 도입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경성시민의 산책지’로 표현될 만큼³⁴⁾ 금강산이 주말 여가 장소로 부각되면서, 1-3일 내에 금강산의 주요 명승들을 두루 다닐 수 있도록 코스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를 통한 산내 이동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타무라와 우에하라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공원 재정 보조를 위해 자동차도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사례를 들어, 금강산에도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주변의 풍치를 유람할 수 있는 자동차도로를 정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1932년에 만물상에의 빠른 접근을 위한 온정리~육화암 구간과 내·외금강의 연락을 위한 온정령~신평리 구간의 자동차도로 공사가 착수되는 한편³⁵⁾, 내금강의 풍경이 절정을 이루는 곳에 바로 닿는 탐거리~표훈사 구간, 외금강의 구룡연까지 신속히 연결하는 신계사~일불대 구간 등 주요 거점과 명승 사이에 자동차도로가 제안되고, 여기에는 연락버스가 운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체력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하루 내에 내금강 혹은 외금강의 주요 명승을 둘러보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무박 2일에서부터 2박 4일까지 일정을 선택해³⁶⁾ 금강산을 압축적으로 경험하는 코스가 마련되었다(Mt. Guemgang Association, 1941). 이 때, 내·외금강을 효율적으로 탐승하기 위해서는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을 넘는 것이 가장 유리했기 때문에, 내금강~비로봉~외금강 간 행로를 구축하고, 정상 근처에 산장이 설치되었다. 1932년 개방된 비로봉 근처 쿠메(久米)산장은 1박 이상 일정의 코스에서 최적의 분절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요 숙박처로서 각광받았으며, 이

29) 산장 5개소, 대피소 8개소, 야영장 15개소가 계획되었다(Mt. Geumgang Scenery Plan(b), n.d.).

30) 1935년 1월 16일자 『조선일보』 3면에서 소개되었다.

31) 1937년 1월 31일자 『조선일보』 3면에서 소개되었다.

32) 안내서는 금강산을 중금강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하여, 동금강의 한하계, 군선협, 옥류동, 동석동, 성문동, 발연계 등 6개 계곡, 서금강의 황천강, 백담동, 만폭동, 구성동, 태상동, 가엽동 등 6개 계곡, 남금강의 만운동, 만경동 2개 계곡, 북금강의 만상계, 천불동, 선창계 3개 계곡으로 이루어진 체계로 보고, 각 계곡별 코스에서 접할 수 있는 명승들을 소개하고 있다(Matsuura, 1934).

33) 안내서는 금강산을 비로봉, 망군대, 백마봉, 내금강-신평리, 만물상, 구룡연, 세존봉, 발봉-수정봉, 비로봉-집선봉-온정리의 9개의 코스로 나누어 설명한다(Mt. Guemgang Association, 1941).

34) 1937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2면의 금강산 소개 기사 제목이다.

35) 1932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7면에서 소개되었다.

36) 금강산에서의 온전한 하루를 확보하기 위해, 짐실이 있는 열차를 이용해 야간에 경성~금강산간을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로써 비로봉 정상에서 풍경을 부감하는 일은 금강산 탐승의 핵심적인 국면으로 새롭게 부상했다(Fig. 12).



Figure 12. A Scenery of Birobong Peak(Shiiki, 1937, p. 38)

4.4 고급 휴양지 조성 계획의 무산과 신금강의 소외
 한편, 장안사와 표훈사, 온정리와 신계사, 신금강 구역의 유점사 부근에는 고급 휴양지도 계획되었다. 이들 구역에는 호텔, 임대별장, 테니스 코트, 낚시터³⁷⁾ 등 상류층의 여가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시설들이 제안되었다. 특히 신금강 구역은 풍경이 유려하고 산내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아 피서지로서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가 적었기 때문에, 1931년의 최종안은 이 곳을 장안사와 온정리를 잇는 자동차 회유도로가 지나고 자동차 발착소가 위치하는 산내 이동의 중간 거점으로 개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1933년 이후 계획안이 축소되면서, 이 곳에는 산장이 설치되는데 그쳤다. 결국 금강산에는 고급 휴양지가 조성되지 못했는데, 이는 도교를 배후로 하는 국립공원인 닛코나 하코네가 전통시대의 신성한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그 상당 영역이 일본 황실과 귀족, 정재계 인사, 외교관 등 최상류층의 별장으로 개발되어 대중화와 거리를 두었던 것과 차이를 갖는다(Nose, 2008). 금강산은 고급 수요가 크지 않은 식민지에 위치한 자연이었기에, 보다 대중적인 수요를 염두에 두고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자동차 회유도로 중 온정령 부근의 도로 건설이 우선시되고 유점사 부근의 회유도로는 완성되지 못하면서, 신금강 구역은 점차 개발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보인다.

4.5 장소 이미지 구축 전략에 의한 풍경의 이원화
 국립공원화 계획은 새롭게 편입된 영역에서는 능동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원자연의 체험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영역에서는 명승 순회 위주의 대중적 관광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영역마다 구분된 성격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는 금강산에서 각각 외금강 풍경의 보편성과 내금강 풍경의 지역성을 강조한 타무라와 우에하라의 가치 평가가 동시에 수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때에는 주변의 풍경의 특색에 어울리도록 풍치건축

37) 낚시터는 영미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플라이 낚시(Fly Fishing)를 위한 시설로 보인다. 플라이 낚시는 파리처럼 생긴 미끼로 유인해 잡은 물고기를 바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큰 특징인데, 자연을 음미하는 근대적 취미 중의 하나였다. 닛코 국립공원의 쉼지호(中禪寺湖)는 인근 대사관 별장에서 휴양 중인 외교관들의 플라이 낚시를 위한 장소로서 애용되었다.

을 행한다는 우에하라의 기획이 적용되어, 영역별 성격이 시각적으로 뚜렷이 드러나도록 풍경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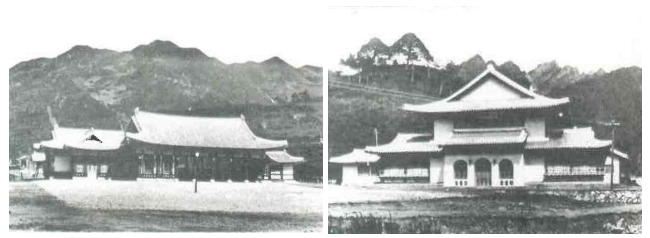


Figure 13. The Station(left) and Auditorium(right) at Inner Geumgang(Shiiki, 1937, p. 27)

주로 경성으로부터 단체 관광객들이 도달하는 내금강에서는 철도역사와 공회당 등이 전통건축의 외양을 띠도록 완성되었다(Fig. 13). 당시, 철도역사의 형태에 지역색을 적용하는 것은 관광 부흥을 위한 철도국의 정책이기도 했는데, 전통양식의 철도역사를 가진 수원, 경주, 남원, 전주 등과 같이 내금강이 ‘조선의 전통적 풍경’의 성격을 지닌 장소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지붕의 물매가 급하고, 정면에 배치된 박공면이 발견되며, 조적조의 몸체를 기용하기도 하는 등 주변 사찰들의 조선식 건축양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건물 외의 교량 등의 시설에도 단청을 입히거나 전통적인 살문양을 적용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총독부 내에서 전통 양식의 재현이 조악하여 외려 풍광을 해친다는 비판을 일으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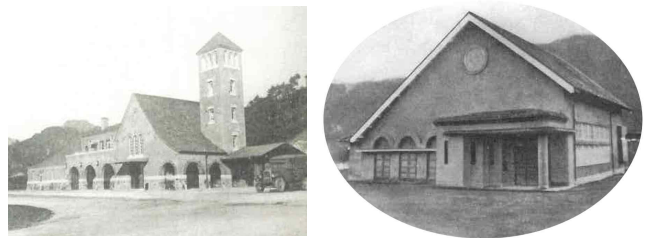


Figure 14. The Station(left) and Auditorium(right) at Outer Geumgang(Shiiki, 1937, p. 2-3)



Figure 15. The Kume Mountain Hut near the Birobong Peak (Shiiki, 1937, p. 39)

이와 대조적으로 원산향을 통해 유입된 일본인과 서구인들이 주로 도달하는 외금강에서는 철도역사와 공회당 등 건물들이 높은 박공지붕을 갖는 조적조의 서구식 건물로 완성되었다(Fig. 14). 이와 유사하게 당시 경관이 수려하고 기후가 한랭하며 폭설이 많아 스키장 등 근대적 스포츠시설이 운영되었던 삼방역 등 북부지방의 철도역사는 급경사의 박공지붕과 하프팀버구조를 갖는 북구식 건물로 완성되는 경향이 있었다(Ahn, 2002). 이는 신체의 회복과

단련을 위해 자연을 찾는 서구의 관습을 지닌 공간임을 표현하여, 외금강을 서구와 대등한 근대적 산악 경관의 입구로서 정의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외금강과 비로봉을 중심으로 배치된 산장이나 휴게소 등의 산중 시설 또한 알프스의 샬레(Chalet)를 연상시키는 양식으로 건립되었다. 이는 미국의 국립공원 내 시설에서도 발견되는 경향으로서³⁸⁾, 일본 본토의 국립공원을 비롯해³⁹⁾, 금강산 또한 같은 경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Fig. 15).

5. 결 론

17-8세기, 장안사와 유점사를 거점으로 하여 내금강과 외금강 남부, 해금강으로 이어지는 사대부들의 금강산 유람이 활발해졌다. 이는 금강산의 산수를 통해 이상적 질서와 만나는 정신적인 여정이기도 했다. 이후, 금강산 유람은 향유계층이 확장되면서 외형적 진기함에 집중하는 형태로 세속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14년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 원산에 인접한 온정리를 통한 금강산 탐승이 확산되면서, 외금강 북부의 명승이 각광받는 한편, 외금강 남부는 신금강으로 새롭게 인식되었다. 또한 여행안내서, 사진엽서 등을 통해 규범화된 풍경 이미지를 소비하는 관광이 등장했다. 1920년대에는 금강산선의 개통으로 서울과 금강산 간 왕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축소되고 편의가 향상되면서, 내금강 장안사와 외금강 온정리라는 두 거점 중심의 금강산 관광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체계적인 금강산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강산 보승회를 조직해 금강산의 국립공원화를 추진했다. 보승회는 일본 조원학의 두 권위자인 우에하라(上原)와 타무라(田村)를 초빙해 계획안을 마련했는데, 최종계획안에는 두 학자의 동일하거나 상이한 관점이 두루 수용되었다. 금강산은 국립공원에 지정되지 못했지만, 계획안은 부분적으로 실현되어 이후의 금강산의 공간과 경관을 바꾸어 나갔다.

이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강암 산악이 갖는 풍경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종래 금강산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외금강 북부의 국유림을 새롭게 편입해, 국립공원으로서 금강산의 영역을 확정하였다. 둘째, 이용목적에 따라 금강산 내 구역을 구분하였는데, 새롭게 편입된 구역은 웅대한 산악, 미담의 자연이라는 면모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신체 단련을 위한 등산 공간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대응해 기존의 내·외금강 구역은 단체관광객 대응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대규모화하고, 자동차 회유도로를 통해 단기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명승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코스 코스를 규격화하는 등 대중적인 관광 공간으로 개발되었다. 한편, 신금강 구역은 고급 휴양지이자 산내 이동의 중간거점으로서 계획되었으나, 계획안이 축소되면서 점차 개발로부터 소외되었다. 셋째, 구분된 구역의 성격이 시간적으로 드러나도록 풍경이 조작되었다. 구역 내 건축물의 양식을 통해 등산가들의 거점인 외금강과 북부의 새로 편입된 구역은 근대적 자연으로, 단체관광객들의 거점인 내금강은 전통적 명승으로 연출하여 풍경이 이원화되었다.

이와 같은 국립공원화 계획을 통해 금강산은 근대기 도시민의 보전과 여가 증진을 위한 도시 밖 자연 공간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 시기 금강산의 변화는 해방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도 큰 틀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새롭게 금강산으로 편입된 선창곡·천불동 구역은 현재 북한에서는 별금강으로도 불리우며 금강산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2박 3일 이내로 제한된 단기 코스를 통해 만물상을 강조하며 금강산을 경험하는 방식은 2000년대 남북화해시대에 진행된 금강산 관광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금강산 국립공원화 계획이 해방 이후 남·북한의 금강산의 인식과 이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다.

REFERENCES

- Ahn, C. (2002). Colonial Tourism and Modernism in Korean Modern Architecture - Focused on Railroad Station during Japanese Ruling Era,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11(2), 7-16.
- Cho, S. (2010). Modern Tourism of Colony Chosun in the 1930s.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36, 369-405.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n.d.). *Geumgang Jeondo*. Retrieved from <http://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1611691&ccbaKdcd=11&ccbaAsno=02170000&cbaCtcd=11>
- Jeon, S. (2017). The Third Line of the Donghae Line and Local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Seokdang Nonchong*, 69, 273-311.
- Jin, J. (2013). Dream of Common Folks - Genealogy of the Style of Geumgangsang Landscapes in Folk Painting,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279280), 295-320.
- Joseon Alpine Club. (1932). *Joseon's Mountain(朝鮮山岳) I*, Kyungseong: Joseon Alpine Club.
- Joseon Railway Association. (1930a). The Mt. Geumgang National Park Plan, *Journal of Joseon Railway Association*, 9(5), 84-85.
- Joseon Railway Association. (1930b). The Mt. Geumgang National Park Plan, *Journal of Joseon Railway Association*, 9(9), 25-26.
- Jung, C. (2014). *Sadaebu, Sansuyulam-eul Tteonada*,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anda, K. (2011). The Selection Process of National Park Landscape Areas and the Imaginative Geographies

38) 스위스 알프스는 미국 국립공원에 방문한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경관이었기 때문에, 공원 내 시설들은 알프스의 산장 형태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다(각주 14의 참고문헌과 동일).

39) 1933년 일본 국립공원협회와 건축학회는 국립공원의 산장(山小屋) 건축 현상공모를 시행했는데, 당선작 대부분은 스위스 샬레의 형태를 기초로 했다(Takasgi, 1934).

- in Taiw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istorical Geography*, 53(3), 1-26.
11. Kim, B. (2020). Japanese Colonial Tourism and Changes of Mt. Geumgang in 1930s, *Critical Review of History*, 131, 382-414.
 12. Kim, J. (2019). The Making of Mt. Geumgang Tourism Space Through Travelers Railway Guidebooks and Japanese Travelogu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4(1), 89-110.
 13. Kim, J. (2021a). The Production of Mt. Geumgang as a 'National Landscape' of the Japanese Empire - Discussions of the Designation of Geumgangs National Park,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56(3), 289-310.
 14. Kim, J. (2021b). *The Social Construction of Mt. Geumgang as a Colonial Tourist Space : Centering on Discussions of Designating Mt. Geumgang as a National Park*. Ph.D. Dissert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5. Lee, S., Ahn, D., Chin, S., & Lee, S. (2018). *Diamond Mountains : Travel and nostalgia in Korean art*. New 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6. National Museum of Korea. (n.d.). Bodukgul in the Album of Mount Geumgang in the *Autumn of the Year of Sinmyo*. Retrieved from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000#>
 17. Nose, M. (2008). A Study on the Process of Tourist Destination Development in Nikko and Hakone: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ourism Resources, Transport Environment and Use of Early Foreign Visitors, *Toy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lletin*, (45), 31-56.
 18. Mt. Guemgang Association. (1941). *Mount Guemgang*, Kyung-sung: Mt. Guemgang Association.
 19. Maruyama, H. (1983). A Study on the Movement toward Establish National Parks in Modern Japan from Social and Economic Historical Backgrounds. *Bulletin of the Kyoto University Forests*, (55), 271-290.
 20. Matsuura, S. (1934). *The Guide of Mt. Geumgang Tour*, Gangwon-do: Mt. Geumgang Travel Agency.
 21. Min, Y. (2010). Chronological change of Sightseeing Mt. 'Keumgang' in the historical context,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27), 117-144.
 22. Mizutani, T. (2014). History of the Selection Process for 16 National Park Proposed Sites in Taisho Era and Tamura Tsuyoshi's Views on National Parks, *Landscape Research Japan Online*, 7, 67-74.
 23. Mizuuchi, Y., Awano, T., & Furuya, K. (2016). A Study on Planning Idea of Tsuyoshi Tamura and Keiji Uehara based on Mt. Kongo National Park Plan. *Journal of the Japanese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79(5), 431-436.
 24. Moon, S. (2011). *America National Park System*, Paju: KSI.
 25. Murakuchi, N. (2011). Conservation of Nature and Japanese National Parks After World War II, Tokyo: Jichosha.
 26. Sekido, A. (2009). *Modern Tourism and Hot Springs*. Seoul: Nonhyung.
 27. Seo, H. (2020).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Tourism Development with Conservation Activities in the 1930s through the Repair Work on the Main Building of Jangansa Templ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9(3), 25-36.
 28. Shiiki, S. (1937). *Scenery of the Mount Kongo*, Kyung-sung: Hidode Shoko.
 29. Son, J. (2010). A Study on the Mode of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Student Body 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6(1), 25-59.
 30. Sung, N., Jeon, B., & Seo, H. (2019). The Reorganization and Changes of Areas in the Diamond Mountains by the National Park during the 1930s, *Proceedings of 2019 KAAH Autumn Conference*, 43-46.
 31. Takao, S. (1918). *Mt. Geumgang in Joseon*, Wonsan: Tokyodo Shoten.
 32. Takasgi, M. (1934). *Drawings of the Chalets at National Parks*, National Park Association &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33. Tamura, T. (1916). Mt. Kongo and its Development, *Journal of the Japan Forestry Association* 408, 10-22.
 34. Tamura, T. (1929). The National Parks in America, *Journal of Joseon Railway Association*, 8(6), 35-40.
 35. Tamura, T., & Kosaka, T. (1930). *Mt. Geumgang Landscape Plan*, Saito Makoto Collection.
 36.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1930). *Documents of the Discussion on Conservation of Mt. Geumgang*, Documents of the Forest Administration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37.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1931). *Documents and Drawings of the Bureau of Forest Management*, Documents of the Forest Administration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38.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n.d.). *Documents regarding Mt. Geumgang*, Documents of the Museum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39. The Railway Administration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1927). *Trip in Chosen*, The Railway Administration of Governor-General of Joseon, 40.
 40. Uehara, K., & Yoshimura, I. (1930). *Mt. Geumgang Landscape Plan I*, Saito Makoto Collection.
 41. *Mt. Geumgang Park Facility Plan*. (n.d.). Ogawa Keikichi Collection.
 42. Yu, S. (2009). Mt. Geumgang sightseeing and image through modern data. *The Society of Practice Folkloristics*, 14, 339-368.
 43. Won, D. (2011). *A Study of Tourism Areas and Tourist Activity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case of Mt. Geumga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ceived Jan. 21 2021 Revised Feb. 26 2021 Accepted Aug. 9 2021)